

5당 지역 선대위 인력·조직 총동원... 선거운동 레이스 준비

광주·전남 시도당 선대위 본격 가동

‘5·9 참미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17일)을 앞두고 각 정당의 광주·전남시도당이 지역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레이스 체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15일께 광주에서 대규모 시·도당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회의 등을 거쳐 선대위를 꾸리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부터 대대적인 지원 유세 등을 벌일 예정이다. 시·도당 선대위에는 시민사회 진영을 비롯한 경제·노동·여성·종교계·학계 인사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은 13일 오후 중랑급 인사들이 포함된 선대위원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시·도당은 선대위와 지역위원회 중심의 바둑 민심을 놓고,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 국정 경험이 있는 후보’ 등을 앞세워 선거 중반부터 불어온 ‘안풍(安風, 안철수 바람)’ 차단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13일 중앙당 선대위가 꾸러지면 시·도당 선대위 출범식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광주시당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가 발족한 만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긴급 회의를 열어 출범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의 ‘녹색돌풍’을 또 한번 일으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의석수 40석 가운데 23명이 호남에 몰려있는 만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물표를 보냈던 과거 대선과 달리 이번 19대 대선은 호남에서 야당 체제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양 당의 시도당 모두 선거일까지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찌감치 선대위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 광주시

민주, 주말 대규모 출범식 총력전

국민의당 “다시 한번 녹색돌풍”

선거운동 개시 17일부터 지원 유세

선거일까지 사활 걸고 치열한 경쟁

당은 시장 차원의 대선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한국당 광주시당은 14일 오후 2시 당사 1층 ‘공감’에서 제19대 대선 광주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다.

광주선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17일부터 개시하는 공식선거운동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대위 조직 추가 보강, 활동 계획 등에 관한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당원들에게 선거 이슈를 전달하고 페이스북 등 SNS홍보를 위한 조직을 구축해 가동할 방침이다.

바른정당도 하현식 광주시당위원장과 이금재 전남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시·도당 선대위를 꾸리고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광주선거대책위원회도 지난 12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조직1본부장인 윤소하 국회의원과 광주선대위원장인 이승남 시장위원장, 강은미 노동 부문 위원장 등 권역별·직능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광주 미래를 위한 5대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5대 공약은 ▲5·18 민주항쟁 진실 규명과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완성 ▲친환경차 선도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경제민주화 모범도시 건설 ▲세계 속의 민주인권도시 조성 등이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가짜 뉴스를 잡아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후보들을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광주 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사이버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의 검색요원들이 온라인상의 선거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김진수기자 jeans@

“모든 것 바치겠다”... 안철수 의원직 사퇴 배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는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하면서 대선 승리를 향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풍(安風)의 상승 흐름에 가일층 탄력을 붙여 판세를 확실히 뒤집으려는 전략적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안 후보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꼭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각오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의원직 사퇴 카드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경쟁주자들과는 확실한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2011년 정치 입문을 결심하면서 사실상 재산의 절반인 안랩 주식의 2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기득권을 버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안 후보의 의원직 사퇴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에 출마한 것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는 효과도 만만치 않아 중도 보수층 지지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가 경남지사 재보선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을 넘기기 직전 ‘심야 사퇴’를 한 것과 확실한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나라가 어렵고 미래와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로 가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서 퇴로를 열어놓지 않는다는 각오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후보 측은 의원직 사퇴 카드가 50% 이상 득표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복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30명 한정〉 복큐슈 美親특가 2박3일 (5/7, 5/21, 5/28 일요일 출발) 1인	198,000원~	※국내수송비, 선내식 불포함	
〈복큐슈 정통〉 뱃비·유후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아마구치 정통〉 아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초·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은 골든위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복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1인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후에·밭마·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홍도, 가거도, 흑산도 트레킹 상품 [5월 23일(화)~5월 25일(목)]			
〈2박3일〉 홍도, 가거도, 흑산도 트레킹 1인	280,000원~		
〈올포함〉 대마도 1박2일 [4월 23일] 279,000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튿날은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공동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1만원, 국내상품: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지 개입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기시/가이드봉사료,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예수 부활’ 사랑의 기적 세상속에서 일어나길...

김은영의
‘그림 생각’

‘의심하는 도마’(1602~1603)

(182) 부활

부활주간이다. 올해 부활절인 16일은 특히 세월호 참사 3주기가기도 해 우리 마음 속 부활의 염원을 다시 새겨보게 한다.

서양미술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성서를 주제로 수많은 작품이 만들어졌고 예수 부활을 묘사한 빛나는 걸작들도 그만큼 풍요롭다. 안드레아 만테나, 조반니 벨리니,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등 거장들은 예수 부활을 형상화한 작품에 장엄하고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를 담아 진중한 감동을 이끌어 낸다. 반면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화와 다른 이미지를 구현해내었던 카라바조(1573~1610)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1602~1603)는 충격적이다.

세 사람의 사도들이 예수를 쳐다보고 있고 그 중의 한 사람인 예수의 제자 도마가 손가락으로 부활한 예수의 옆구리 상처를 찔러보고 있다. 눈으로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도마의 놀란 듯한 눈썹과 이마의 굵은 주름들이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도마는 최후의 만찬 때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고, 예수가 부활했을 때도 그 사실을 의심했다.

카라바조도 도마와 같은 심정이었을까? 의심 없이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이 작품을 접하게 되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심해볼게 될 것 같다. 기독교에서의 ‘예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며, 하나님과 영육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그림이라는 생각도 든다.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4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 작품은 여전히 도발적으로 다가온다. 늘 고전적인 규범을 벗어났고, 어떤 기독교 회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회화를 창조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카라바조는 어쩌면 ‘예수 부활’과 같은 사랑의 기적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천상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랐을 지도 모르겠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